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반대 긴급 결의안

(이효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4
----------	------

발의연월일 : 2018. 4. 11 .

발 의 자 : 이효상·이복희·오세라

김영길·서경환·김경환

김순점·천병태·권태호 의원

(9명)

1. 주 문

-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현대중공업의 명분없는 구조조정 즉각 중단을 요구함.
- 상생과 동반자정신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하고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단협안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요구

2. 제안이유

- 산업도시 울산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는 대기업 현대의 고용 불안임.
- 구조조정은 이윤극대화를 생각하는 회사 측의 일방적 행태임.
- 비정규직 축소에 대한 정부정책에 도전하는 형태임.
-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울산 전체 경제를 무너뜨리는 중공업의 행태를 좌시할 수 없어 중구의회 차원에서 결의하고자 함.

3. 결 의 문 : 따로 붙임

제205회 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8. 4. 12(목) 11:00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반대 긴급 결의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이효상 외 8명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반대 긴급 결의안

현대중공업은 명분 없는 구조조정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조선산업 발전전략의 자료에 현대중공업의 자구안 이행률 100.5%라고 합니다. 더 이상 구조조정 정리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현대건설기계는 일손이 부족할 만큼 경기가 좋은데도 중공업과 똑같이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니 더 더욱 명분이 없습니다.

2년 전 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가 동구를 떠나고 울산 전체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광역시가 부끄러울 정도로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결국 산업도시 울산에서 대기업 현대의 고용불안이 원인입니다.

지난번 1차 구조조정 당시 동구의회에서부터 반대 결의안을 상정하여 동구 지역의 문제를 떠나 울산전체의 문제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임,단협 시 휴직과 교육에 동의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지만 회사가 약속을 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희망퇴직이 모두가 살길이라는 회사 측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상생과 동반자정신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현대중공업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하고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당장 구조조정을 중지하고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단협안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도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4월5일 발표했습니다. 조선소 빅3는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매년 3천명씩 총1만5천명의 신규노동자들을 채용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발생되고 있는 이 사태는 이윤극대화를 생각하는 회사 측의 일방적 행태입니다. 재벌 3세 경영승계에 불편함을 털고 가자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축소에 대한 정부정책에 도전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확실합니다.

이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을 반대하며 동구는 물론 울산 전체 경제를 무너뜨리는 중공업의 행태를 좌시할 수 없어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인 현대중공업 노동자 구조조정을 단호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될 동구경제뿐만 아니라 울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쓰나미처럼 크게 닥쳐올 것이므로 회사는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범정부차원에서 즉각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여야를 벗어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즉각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중구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중구에서도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삶의 터전이므로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 반대에 25만 구민과 함께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2018년 4월 12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